

사회

도청 간부들 F1 건설업체서 ... 현대삼호중공업은 하청업체서 ...

룸살롱 접대 기관·기업 속속 드러나

목포 '마담노트' 성매수 손님 인적사항 놀라게 꼼꼼해

"이러다간 단순한 '술집 장부'가 '목포 살생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16일 오후 목포지역 최대의 유흥가인 하당산도심에서 만난 시민 김모(45)씨는 'H룸살롱 마담 장부 사건'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 지역 이미지가 실추되자니 않을 까 걱정스럽던 표정을 지었다.

대반으로 온 사람이 2차를 나가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냐"고 되물었다. 이밖에도 목포지역에서는 목포시청과 해양경찰 관계자 등 지역 공공기관과 대기업 직원들이 이곳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소문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유흥가 몰상·지역 이미지 실추> = 추석 대목을 앞둔 하당의 유흥가는 유흥가를 짓고 있었다. 긴 추석연휴를 앞두고 반짝 특수를 기대했는데 '마담 장부' 보도 이후 매출이 평상시의 절반에도 못 미칠 정도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A룸살롱 업주 김모(45)씨는 "그렇

지 않아도 경기침체로 장사가 안되는데 언론 보도 이후 단골들마저 발길이 끊겼다"고 말했다. 지역 이미지 실추를 우려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더 컸다. 상동 주민 이모(36)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로부터 '너도 관련됐냐'는 농담섞인 조롱까지 받고있어 너무 창피하다"고 말했다. <꼼꼼한 '고객 관리'가 오히려 화근(?)> = 문제의 H룸살롱은 평소 세세하고 꼼꼼한 영업관리로 고객유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업소의 비밀장부에는 날짜별로 방 번호와 함께 손님에 주무한 주류, 접대부 이름, 손님 전화번호까지 자세히 기록돼 있었다. H룸살롱 전 여종업원은 "손님이

나 가면 마담이 꼭 전화번호를 물어보라고 기록했다"며 "만일 손님의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모를 경우 우리들에게 꾸지람을 하거나 바로바로 손님의 특이사항을 기재하는 등 치밀한 장부관리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자메시지 안부를 통한 영업은 물론 이른바 '택시PR'을 통해 택시 기사가 손님을 H룸살롱으로 데려올 경우 1명에 5만원, 2명에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치밀한 영업관리로 손님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9개월의 기록이 담긴 비밀장부가 우연한 계기에 경찰의 손에 넘어감에 따라 꼼꼼한 관리가 결국 화근이 된 셈이다. /목포=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사랑의 송편 나누기

16일 광주시 북구 각화동 장애인직업재활센터 4층에서 열린 '추석맞이 사랑의 송편 나누기' 행사에 참여한 북구 장애인 복지회(이사장 최희규) 자원봉사자들이 독거 노인·한 부모 가정 등 700세대에겐 전달할 송편을 빚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영광굴비·완도멸치·나주배 ... 가짜 판매 잇따라 적발

추석을 앞두고 영광 굴비나 나주배 등 유명 농수산물의 원산지별 속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은 16일 중국산 방동조기를 제가공해 영광 굴비로 속여 팔거나 보관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로 모 굴비 업체 대표 박모(35·영광군)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박씨 등은 올해 초 부산, 인천 등지의 수입상으로부터 중국산 조기 2280상자(시가 4억원 상당)를 산 뒤 광주의 방동공장 등에서 제가공해 유통업체 등에 판매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절 선물을 겨냥해 멸치의 원산지를 속인 업자들도 해경에 붙잡혔다.

완도해양경찰은 이날 진도산 멸치를 완도산으로 속여 관 완도지역 수산업자 김모(58)씨 등 4명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은 각각 광주와 목포에서 전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15kg짜리 나주배 상자에 각각 4상자, 1상자씩 옮겨 담던 중 단속반에 적발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유통한 혐의이다. 나주배를 높은 지평도를 노려 이른바 '박스같이'를 시도한 업자들도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은 전남 농축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일제 단속 중 배의 원산지를 속이려 한 업자 2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들은 각각 광주와 목포에서 전남도 지역에서 생산된 배를 15kg짜리 나주배 상자에 각각 4상자, 1상자씩 옮겨 담던 중 단속반에 적발됐다. /최정호기자 choice@kwangju.co.kr

낙지머리 카드뮴 논란 "검사결과 오류 가능성"

수산전문가 주장

낙지 머리의 안전성 여부를 둘러싸고 서울시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낙지 머리에서 카드뮴이 기준치의 15배가 넘게 검출된 만큼 낙지 머리와 내장을 떼어낸 뒤 요리를 해야 한다'며 급급 적 먹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시중에 유통 중인 낙지·문어 등 연체류 14건의 머리·내장 등 특정 부위의 중금속 검사 결과, 모두 카드뮴이 기준치인 kg당 2.0m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식약청의 연체류 카드뮴 안전관리기준은 낙지 1kg에 2.0mg이지만, 머리 부분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식약청은 서울시가 조사한 연체류 건수가 너무 적어 위해성을 논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식약청은 특히 '낙지 머리 검사

결과를 전체 몸통 대비 카드뮴 기준과 직접 비교한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머리가 낙지 총 중량의 10%에 불과해 낙지 머리를 포함해 전체를 먹을 경우 중금속이 허용 기준을 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남서해수산연구소 김경중(49) 연구사는 최근 낙지 등의 머리 등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서울시의 발표 결과에 대해 오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사는 "지금까지 연구결과 국내산 낙지의 카드뮴 검출량은 근육 기준으로 평균 kg당 0.1mg 정도로 기준치 2.0mg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며 "내장이 들어 있는 머리라고 해도 20.0mg을 넘는 카드뮴 검출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사는 또 "어패류 중금속 검사시 분석 테크닉·검사 시약 품질·조사실 청정도 여부 등이 결과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이종행기자 galee@연합뉴스

나원침 (8122) 김종두



순천화성경미장 대표 영장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16일 순천화성경미장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관계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증여)로 경미장 사업체인 P사 대표 이모(여·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화성경미장 개장에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경미장 사업권자인 마사회 간부에게 돈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경기자 ejkim@

시장서 흥친 과일 자기 가게서 팔아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도매시장 창고에서 흥친 과일을 자신의 가게에서 판매한 30대가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남구 월산동에서 과일가게를 하는 이모(30)씨는 지난 12일 새벽 0시30분께 서구 매월동 농산물시장 지하 1층 창고에 보관돼 있던 배 7상자를 훔쳐 등 지난 7일부터 최근까지 총 20차례에 걸쳐 500만원 상당의 과일을 훔친 뒤 자신의 가게에서 팔았다는 것. ○과일 도매업을 했던 이씨는 도매업자들이 창고 문을 잘 잠그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새벽시간 대 불래 창고에 들어가 과일을 훔쳐오다 도매상들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에 '달미'. /김희기자 kimho@

닥치는 대로 흥친 '무법 10대'

차·오토바이·기름·금품 등 6천만원 절도 3명 영장

지난달 교통정보고(옛 소년원)에서 퇴소한 서모(18)군과 김모(18)군, 서군 등은 지난달 11일 새벽 1시에 광주시 북구 문흥동 한 아파트 앞에서 길가에 세워진 오토바이를 보고 '군침'을 흘렸다. 올 여름이 유난히 더웠던 데다 차비 마저 떨어지자 함께 타고다닐 교통수단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결국 서군 등은 오토바이 키박스를 뜯은 뒤 전선을 연결해 시동을 가는 수법으로 오토바이를 훔쳤다. 순천만원대 절도 행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이들은 김군의 후배(17)와 함께 3명이 몰려다니며 오토바이 2대를 더 훔쳤다. 그러나 금세 오토바이가 지겨워진 이들은 이번에는 자동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지난달 중순께 광산구 월곡동 한 편의점 앞에 몰래 숨어있던 이들은 한 운전자가 담배를 사기 위해 시동을 끄

지 않고 편의점에 들어간 사이 차를 훔쳐 타고 달아났다. 이들은 흥친 차가 지겨워지면 주저없이 또다른 차를 훔쳤다. 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기름값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 주유소에 들어가 연료를 주입한 뒤 그대로 달아나버렸기 때문이다. 생활비 역시 절도도 충당했다. 배가 고프면 빈집에 몰래 들어가 돈을 훔친 뒤 라면과 김밥을 사먹으며 끼니를 때웠다. 그러나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이들은 주유소 등에 설치된 CCTV에 범행 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서부경찰은 15일 차량 5대와 오토바이 3대 등 5800만원 상당을 훔치고 60만원 상당의 기름을 넣은 뒤 도주한 서군 등 3명에 대해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희기자 kimho@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KJHR (국제보청기)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Seolmersunhaeng (서틀머스 은행) featuring a boat and a table of services and prices.